

# 왕조문화를 활짝 꽃피운 역사의 한 장면

한영우 지음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조선시대 왕조문화를 부흥시킨 왕으로 세종과 정조를 꼽는다. 세종의 업적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정조의 치적은 그에 비해 덜 친숙하다. 부국강병과 애민정치, 학문진흥 등 한층 더 다져진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조는 왕조의 르네상스를 이뤘다. 정조는 지금의 수원땅에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세우고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장해 능행에 참배하곤 했다. 정조는 모든 정치행위를 기록으로 남겼다. 정조시대 '의궤'는 그 기록문화의 꽃이다. 화성 신도시 건설의 공사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1795년 어머니 혜경궁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아 다녀온 8일간의 행차 보고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는 그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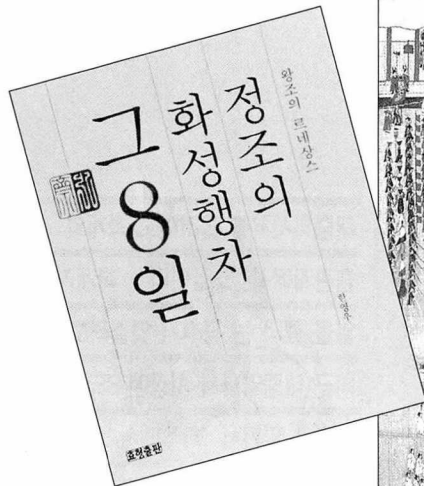
## 구질서 개혁의 거대한 정치드라마

규장각 관장을 지내며 '의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온 서울대 한영우 교수(60)가 이 의궤 자료를 바탕으로 8일간의 화성행차 모습을 일반독자에게 고스란히 재현해 들려주는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을 펴냈다. 책머리에는 김홍도가 주관해서 그린 1천7백여명과 근 800필의 말들이 등장한 행차그림 '반차도'가 새롭게 채색되어 펼쳐지는데, 마치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으로 향했던 당시 행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 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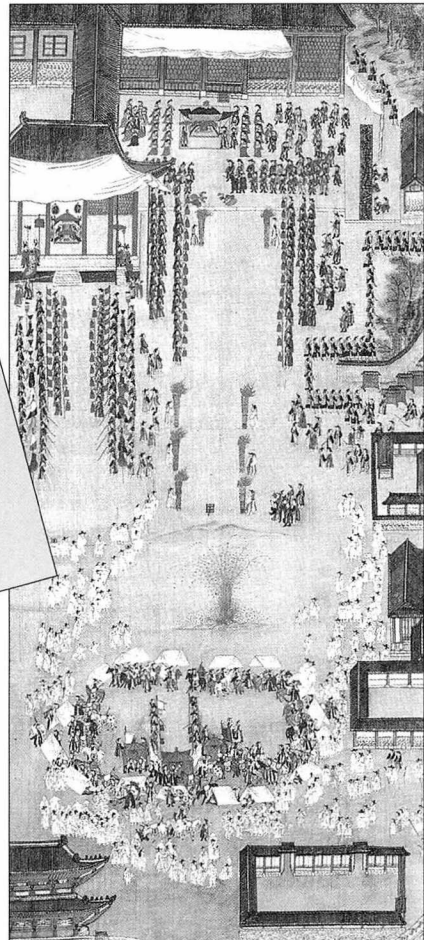
하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며 서울 외곽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자급자족의 직할통치지역으로 낙원도시의 꿈을 현실화시키려 했으며, 아버지를 죽게 한 정치 현실을 새로이 개혁하려는 구상을 가졌다. 정조는 재위 때 13차례 능행을 나섰는데, 행차마다 8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직접 민정을 시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부수적으로는 길을 닦고 다리를 건설하는 치도의 효과를 얻었다. 정조가 을묘년에 행한 8일간의 화성행차는 작게는 어머니 한을 풀어주는 효성의 표현이고, 크게는 재위 20년간의 위업을 과시하며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정치적 시위이기도 하다. 구질서를 청산하기 위한 도전의 이 거대한 정치드라마 속에서 왕조문화의 절정인 르네상스의 꽃이 활짝 피었다.

중요한 행차인 만큼 준비도 치밀했다. 1년 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행차일은 농사철을 피한 윤2월9일로 결정됐다. 총비용은 10만 냥으로 예정됐는데 이는 국민세금이 아닌 정부의 환곡을 이용한 이자수입이었다.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이 타고갈 가마에 특히 정성을 기울여 29종의 장인 약120명이 참여해 만든 가마 두채를 준비했다.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짧은 기간 최소비용으로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과학적 설계의 배다리공사는 불과 11일만에 완공시켰다. 행차 떠나기 닷새전에는 예행 연습이 있었는데 정조는 이때 신하들의 과잉충성을 염려하여 "먼곳에서 진기한 음식을 구해다 바치지 말 것" "왕의 진찬은 10여 그릇이 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엄명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떠나는 날 새벽 묘시, 먼저 할머니께 먼길 다녀올 인사를 드린 다음 어머니, 두 누이와 함께 화성을 향해 출발한다. 가는 동안 왕은 혜경궁이 받은 음식을 직접 살펴보고 드렸는데, 첫날 혜경궁이 받은 음식 가운데 떡과 강정·과일·수정과·편육이 오른 일종의 간식인 조다소반과도 있었다. 8일 동안 왕이 받은 아침상에는 팔물로



화성에서의 마지막날이자 행차 여섯째날은 매화포를 터뜨리며 행사의 마무리를 한다.



지은 밥과 어장탕·연계찜·쇠고기·우족·승어·꿩구이 등 1그릇, 박고지·미나리·도라지·무순·죽순 등 채1그릇, 전복젓·석화젓·조개젓·계해 등 젓갈 1그릇과 담침채·장 등의 음식이 올랐다.

시흥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저녁 화성행궁에 도착해 셋째날 향교참배와 문무과 별시시행, 회갑잔치 예행연습 등 잔치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특히 진시에 거행한 문무과 별시에는 문과 5명, 무과 56명을 선발해 지역주민의 사기를 높였다. 넷째날 해뜨기 전 어머니를 모시고 현릉원을 향해 떠났는데, 혜경궁은 28세에 뒤주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마친 동갑인 남편 사도세자에 대한 비통함을 누르지 못해 울음소리가 장밖에까지 들렸다. 이에 왕은 친히 찾증을 들고 어머니께 권하기도 했다.

## 백성과 함께한 회갑잔치

다섯째날, 이번 행차의 하이라이트인 혜경궁의 회갑잔치가 벌어졌다. 혜경궁의 자리에는 십장생 병풍을 치고 연꽃무늬 방석이 깔린다. 왕의 자리에는 표피방석과 진채병풍이 놓였다. 내외명부가 혜경궁에게 절을 하면 낙양춘곡 여민락이 번갈아 연주되고 음식상과 꽃,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 이어진다. 천세만세곡이 연주되고 천천세를 부른 후 왕이 자리에 돌아가면 참가자에게도 음식상과 꽃술잔이 올려진다. 복두를 쓰고 녹색 삼을 입은 악사들이 여민락을 비롯한 음악을 연주하고, 서울과 화성부에서 선발된 33인의 여령이 무고·학무·수연장·처용무·선유락 등의 춤을 추고 잔치는 절정에 달한다.

여섯째날이자 잔치 다음날 새벽에 홀아비나 과부·고아 등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나

눠주고, 오전에는 양로연을 열어 어머니 회갑의 기쁨을 주민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인정이 방방곡곡에 미치기를 바랐다. 양로연을 마치면 공식행사는 거의 끝난 셈인데, 왕은 화성 성곽 건물 중 가장 경관이 빼어난 정자에 가서 잠시 감회에 젖어본다. 오후에는 신하들과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했는데 여기서 성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왕이었다. 저녁식사 후 야간활쏘기를 끝내고 매화포를 터뜨리면서 일년 전부터 준비해온 화성에서의 행사가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됐음을 기뻐한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일곱째날에 정조는 백성의 고충을 암행한 신하들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읽고 시흥행궁에서 밤을 보내며 직접 백성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배다리를 다시 건너 한양으로 입성한 후 창덕궁 내전으로 돌아오자 8일간의 장엄한 화성행차는 드디어 막을 내린다.

하지만 마지막 행차 마무리도 중요했다. 신하 군졸에 대한 위로잔치가 벌어지고 푸짐한 상도 내려지는데, 의궤편찬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새로 만든 금속활자인 정리자를 사용해 모두 100여부를 제작했다. 이 정리위궤의 세밀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시 원행의 거의 모든 것을 재현할 수 있음은 물론, 정조의 통치스타일과 18세기 궁중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 김지원 기자

효형출판/A5신/318면/18,000원



《반차도》중 혜경궁의 가마행차의 일부.